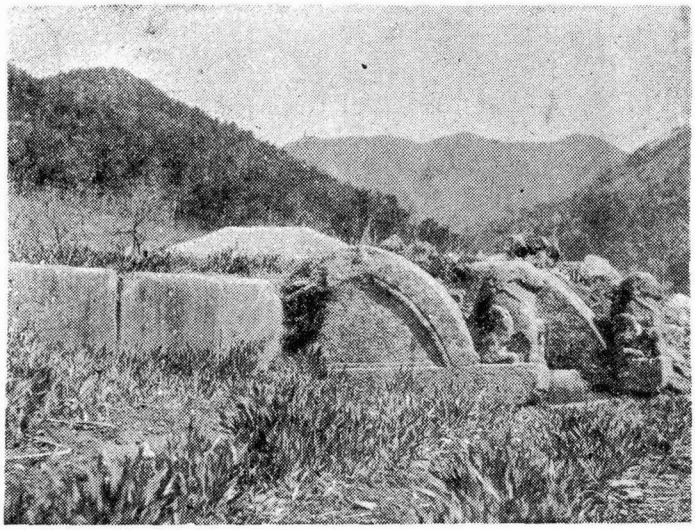
保寧 聖住寺址의 金堂址

李 殷 昌



聖住寺址에 對하여는 本誌에 二次에 걸쳐서 中門址(第二卷 第五號)와 逸名塔碑(第二卷 第九號)를 紹介한 바 있는데 이곳 金堂址도 버려두기에는 섭섭한 感이 있어 이에 紹介하는 바다。

金堂址는 가로(橫) 六五尺 세로(縱) 四八尺의 高臺基壇이 殘存하는데 後補로 推定되는 自然石을 그대로 使用한 礎石이 글러있고 가운데에 石造蓮花座臺 破片이 散在하며 父老가 傳하는 말에 무릎 위에 서서 겨우 귀를 만져볼 수 있는 巨大한 金屬佛이 三十餘年前까지 있었다 한다。推測컨대 石造蓮花座臺에 金屬製 丈六像을 安置①하였던 것으로 推測된다。그런데 金堂址를 紹介하려는 目的은 創建當初의 遺貌인 基壇石과 石階에 있다。

1、基壇石……金堂址基壇 南側에 基壇石 一部가 남아 있다。곧 面을 다듬은 板石이 이를맞춰 세워졌는데 이는 地臺石위에 面石을 세워 다시 그 위에 甲石을 덮은 形式인 것 같다。慶州 感恩寺 金堂址의 基壇石의 構造②에서도 이러한 點을 엿볼 수 있거니와 新羅統一期에 盛行한 石造基壇의 手法에 相通된다。

2、石階……基壇 南側中央에 石階가 殘存하는데 階段式 踏石(디딤돌)이 層層이 놓이고 兩側 隅石으로 짜였다。隅石의 彫刻이 불만한 것이니 地臺石、隅石、石獅가 모두 一石으로 되었는데 鮮妙한 線刻으로서 地臺石을 表示하고 그 위에 圓板을 四等分한 모습(ㅁ)의 隅石을 놓았고 또 이 隅石背를 突帶로 修飾하였으며 그리고 이 石階의 特異한 點은 隅石端 兩側에 各各 石獅를 配置한 것이다。

石獅는 石階 左右에 一軀씩 配置한 石獅이니 前後 四肢를 모아 地臺石上에 踞座의 姿勢를 取하였다。兩眼을 부릅뜨고 開口한 齒列은 험상궂게 하고 鬣毛를 너펄거리며 正面을 向한 顔貌는 雄豪의 氣勢를 보이는데 特히 頸部의 瓔珞飾과 前肢사이에 寶珠를 끼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本寺刹 創建과 同時에 羅末의 所作인즉 저 華嚴寺 獅子石塔系의 遺例와 같은 것임을 添記해둔다。

註

① 金屬製座佛은 日人들에 依하여 搬出되고 石造座臺는 其後 破壞되었다함

② 國立博物館特別調査報告第二册 感恩寺二四面——二八面參照

榮州休川里 磨崖石佛

秦 弘 燮

慶北 榮州邑 醴泉쪽으로 얼마 안가서 有名한 可興里 磨崖三尊像이 있고 여기서 東쪽을 보면 논과 그다지 넓지않은 개울을 건너 얕은 丘陵이 보이는데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얼마쯤 내려가면 언덕은 제법 높아지고 큼직큼직한 岩石이 울퉁불퉁해진다。이 附近이 休川里로 이